

10월 26일 정책회의 정리 part2.

<다양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총여>

- ▶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개인의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 ▶일상적인 공간으로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총여
- ▶공간 별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공간의 정치화'를 바란다.
-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다양성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연세의 각 공간을 자세히 뒤집어 보면서 총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그에 따라 정말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가지 이다. 첫째, 학교 당국에 요구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 둘째, 여학우들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공간의 불합리한 점을 자각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총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는 구분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듯)
- ▶이는 복지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고 복지와 정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말하자면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복지를 말하는 것은 일상성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 ▶공간별로 정확하고 자세한 실사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유의할 점과 세부내용

-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는 없다.
- 기존의 구분선에 따라 다양성을 사고하는 것은 자칫 진부할 수 있으므로 공간의 구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세분화된 각 공간의 실태와 그 공간에 속해 있는 여학우들에 대한 인터뷰를 토막글로 넣을 수 있다.
- 가시화되어 있는 여성은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여성은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요.
- 각 공간의 '여성주의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예를 들면 단대별 교수비율)을 분석한다.
- 각 공간의 여성들에 대해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예를들면 공대 여성과 생과대 여성의 이미지)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의 예와 우리가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

- 여성이 많은 공간의 여성과 여성이 적은 공간의 여성
- 중도에서 기거하는 여성
- 기숙사에 사는 여성: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야 하는 여성
-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여성
- 고시생: 고시동 기숙사
- 대강당을 지나 다니는 여성: 학내에 학생들의 공간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 그러나 그러한 없는 공간조차 성별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에 따라 권력 불평등이 나타남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덧붙여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등을 말할 수 있다.
- 하숙집, 자취집에서 생활하는 여성: 여학생들이 살기 편한 하숙집 정보